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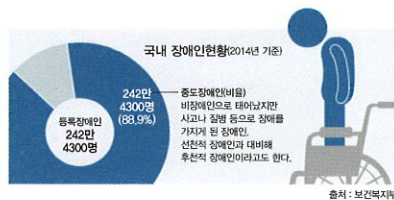
Q. '장애인'의 반대말은?

A. _____

어떤 대답을 적었나요? 신체적으로 건강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르다고 구별 짓기 쉽죠.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요.

장애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, 갈수록 선천적인 이유로 인한 장애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,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이유로 인한 장애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.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가 전체의 거의 90%에 육박할 정도죠. 즉, 장애인 10명 중 9명,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쳐온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만은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.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“따라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 장애인입니다.”



바르게 배려하기!!

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만난 여러분! 오늘의 말씀처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뽀뽀 차올랐습니다. 다음 중 바르게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1. 시각 장애인과 함께 길을 걸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?



①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잡아서 이끌어 준다. ()



② 스스로 걸을 수 있으니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반걸음 앞서 걷는다. ()

2.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.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?



① 보다 편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밀어 준다. ()



②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준다. ()

이처럼 장애인을 도울 때에도 적절하고 바른 배려는 필수! 오히려 과도한 도움은 장애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한 가지 더! 행동하기에 앞서 반드시 도와주어도 괜찮은지를 묻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